

▶ 3일차(6/24)

아침을 먹고 어제 지하철을 탔던 얘기를 하다보니 이미 중정기념당에 도착했다. 중정기념당은 대만 총통 장제스(蔣介石)를 기리는 전당이다. 장총통의 본명인 '중정(中正)'에서 건물 이름을 따왔고 그가 서거한 후 1980년에 기념당을 세웠다. 기념당 주위로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현재 시민들은 이곳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나들이로 나오기도 한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옆문. 정문보다 옆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념당에서 가깝기 때문이었다. 중정기념당 1층에는 장제스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장제스가 입던 옷, 신발, 의자, 자동차, 사진 등 하나하나 모두 다 전시를 해놓았다. 한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나 거대한 건물을 짓다니 장개석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

▶ 후기

걱정했던 것 보다는 재미있게 종료된 대만 해외문화탐방. 그 중 독특한 점은 대만 사람들은 교통 체제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이다. 대만은 스쿠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좌회전 신호가 거의 없다. 다른 차량이랑 겹치겠다 싶으면 양보하거나 서둘러 빨리 가려하고, 클락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길에서 제일 대접 받는게 발통 2개 달린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여기서 느낀 것은 교통 문화도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뺑뺑거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속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시 이것도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다. 우리나라 문화와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도덕시간에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가 새삼 떠오르면서 그 문화에 대해 존중감이 생기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대만에 막 도착해서 공항 밖을 나왔을 때의 공기는 잊을 수 없다. 매우 뜨겁고 습해서 숨 쉬는 것도 짹짹 막히는 느낌이 들어 일정표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도 너무 더워서 제대로 구경을 못한 것도 많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고, 이번 해외탐방을 통해 깨달았던 점들 중 후회했던 부분은 반성해서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활용하고 싶다. 생각했던 것 보다 얻을 게 많았던 뿌듯한 여행이었다.